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37:1-11, 히브리서 11:17-22

최정웅 목사님

어려운 역사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험겨워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오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제일로 하기 쉬운 것이,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뭔가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핑계를 대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하고 있다. 다 부자들 잘못이다, 기독교 잘못이다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풀릴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우 수밖에 없는 저주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빠져나왔다. 그런데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빨리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 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묘함, 특혜다. 이렇게 해서 체험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을 뿐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전달되는 것은 이론으로서의 전달이 아니다. 야곱이 응답받은 것처럼, 완전히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깊이 체험한 복음을 가지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했는데, 이 요셉이 세계복음화하는 후대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언약 전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1. 야곱이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했다.

제일 먼저, 야곱이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다.

(1) 우리가 지난주 구약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릴 때 겪었던 사건이 있었다. 어릴 때 이삭이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대신 수양을 보내 주셔서 죽게 하신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 거기에서 자기가 살게 된 체험을 했다. 복음에 대한 체험을 자기 생명을 걸고 하게 된 것이다. 이 체험을 가지고 이삭이 인생을 시작한다. 이렇게 복음을 체험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 언약을 가지고 전달받으면서 자란 아들이 바로 야곱이다.

(2) 그런데도 야곱은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했다. 자꾸 인본주의를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어려움을 주셔서, 야곱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셨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우리의 모델이지만, 야곱은 우리의 모습 같다. 그 생애를 훑어볼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언약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체질화 해서 전달했는지 과정을 살펴보아야 되겠다.

① 속임수를 써서 형 에서의 축복을 팔쪽 한 그릇으로 빼앗았다.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말이다. 마키아벨리 말대로, 내 앞에 있는 것은 모조리 몰아내고, 걸림돌은 모조리 치우고 나를 위해 산다는 의미가 되겠다. 뱃속에서도 쌍둥이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싸웠던 것이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 하는 말이다. 내 앞에 누가 서려고 하면 제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말이다. 결국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 야곱이 일생동안 그렇게 살았다. 삼촌의 재산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에서가 그런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냐? 기회만 나면 죽이려고 했다. 이게 부모 눈에 보였다. 함께 두었다가는 두 아들을 다 잃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킨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곱게 자란 야곱이 처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 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내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처음으로 스스로 붙잡게 된다. 이것이 베엘에서 체험한 창세기 28장의 기록이다.

②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가정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형이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동생이 오는데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형이 나를 치고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 하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생을 걸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피가 많았는지, 재산 중에서 한 뭇을 떼어서 형에게 너물을 보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 아내가 네 사람

이니까, 여종과 그 자녀들을 보내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라헬과 그 자녀들을 보냈다. 그리고 자기는 암복강 나무터를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기도한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다.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절대 안 놓아주는 것이다. "이제 날이 새니까 나를 놓아주어라." 절대 안 놓아주는 것이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 끝까지 고백 안 하고 잘못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때 천사가 이름을 지어준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라. 나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오라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암복강나무를 건너는데, 하늘에서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인본주의를 쓰고 머리를 굴리다가 고생 고생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체험이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야곱이 인생을 바꾸게 된 과정이었다. 첫 번째가 28장, 두 번째가 32장이다.

③ 이 양반이 노년이 되었는데, 숙곳으로, 세겜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좋고 풀 좋은 곳으로 다녔다. 옛날 언약을 잊고 있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다. 베엘에서 자고 있었는데,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때까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이제 나는 나그네가 되었구나. 짐승과 사람의 위협 속에서 나그네 길을 가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네 있는 곳을 내게 주겠다." 이 꿈에서 깬 후 고백한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구나."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야곱이 한 약속이 있다.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워서 기를 붙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다. "나를 지키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यो,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십일조는 약속이 있는 예물이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아직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다. 어제도 약속이 된 청년이 그 첫 월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우리 청년들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계속 실천하고 있다. 청년들은 이렇게 언약을 잡았다.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아직도 십일조 안 드고 있으면 신자라고 하기 힘들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느냐 하고 성경에 말씀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 교회를 헌당하겠다고 100만 원 이상 낸 사람이 210명 밖에 안 된다. 1000만 원 이상 현금한 사람은 77명이다. 그래서 헌당이 안 되지 않나. 1억 원 이상 드린 분은 일곱 명 뿐이다.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되겠는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야곱이 이 약속을 해 놓고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물에게 강간을 당했다.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가?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었다. 자기 왕에게 가서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강간했던 것을 사과하고, 통혼하고 같이 살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디나의 오빠 레위가 피를 냈다. "좋다. 그러나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좋다고 한 것이다. 포경수술을 하는 것인데, 마취제도 없고 소독도 제대로 못 할 때다. 3일 쯤가 제일 힘들다. 모든 족속이 할례를 하고 3일 쯤가 되어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습격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다. 대 참사가 일어났다. 이때 야곱이 가족들에게 선포한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것이 창세기 35장이다.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것을 요셉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삶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것이 요셉이다. 이렇게 위기 순간이 왔을 때마다 야곱은 복음을 삶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겠는가. 결단해야 한다. 빌리 그레이엄의 말대로 믿음은 결단이다.

지금 결단해야 한다. 인생 전부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해야 한다.

2. 이렇게 체험한 복음을 아굽이 요셉에게 전달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해서 체험한 그 복음을 아굽이 요셉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1) 요셉이 어릴 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 왜 라헬을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요셉을 고생시키셨을까? 목상해 볼 필요가 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친정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숨겨가지고 나왔다. 그렇다면 라헬이 무엇을 자녀에게 심었겠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요셉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간 것이다. 그래서 라헬은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요셉에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불러가 버렸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굽이 책임을 지고 요셉을 가르면서 요셉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고 체질로 만든 것이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붙잡고, 그가 생을 통해서 체험한 언약을 아들에게 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백 가지 이유라는 게 있더라. 두 가지만 소개해 보면 이렇다. “딸에게는 함께 있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빠가 필요하다.” “딸에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는 아빠가 필요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쭉 나온다. 나는 딸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아빠가 못 됐었구나 싶어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 아들에게, 딸에게 못된 것만 전해주는 엄마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라헬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웃음)

(2) 아굽은 요셉에게 자기 생을 통해 체험한 언약을 전달해 주었는데, 증거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누린 기도의 비밀을 요셉이 똑같이 누린 것이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할아버지 이삭은 어땠는가? 이삭이 40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머리를 얻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미션을 주었다. 그래서 종이 가서 찾아낸 사람이 리브가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와 보니까, 창세기 24:63에 말하기를, 이삭은 목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기도를 아굽이 또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 때 압박감에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을 요셉이 보면서 자란 것이다. 아버지 아굽은 집중기도를 체험했던 사람이다. 이 기도의 비밀이 외롭게 자란 요셉에게 전달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언약의 전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램넛트 요셉이 아버지에게 평상시에 들었던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언약적 꿈이 거기에서 나왔다. 중요한 것은, 형들은 이것을 시기했다. 맨날 요셉만 귀여워하고, 채색옷도 요셉에게만 준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났겠는가? ‘내가 뱀엘에서 꿈을 꾸 것처럼 내 아들도 꿈을 꾸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구나.’ 내가 해 봐야 아들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다. 믿음의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자기가 절대 안 해 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짐짓 야단을 쳤다. 형들이 너무 기분나빠하니까, 이야기를 조심해서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에게도 꿈으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렇게 꿈을 주었구나 하고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맡기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회의 언약이 이제 드디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다. 느끼고 깨달은 것이다. 왜 이 꿈을 간직해 두었는가?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했다. “이놈아, 나와 네 어머니까지 네게 절한다는 말이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드디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가문 살리는 언약의 아들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다. 아굽이 늘 했던 이야기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올 만큼 각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겠는가. 아이가 처음으로 걸을 때를 기억하실 것이다.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된다. 처음으로 똥가 상을 받았을 때, 정말 감동이 되지 않나?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아로써겨진다. 아굽의 마음에도 이 요셉의 꿈이 이렇게 가슴에 담기게 된 것이다. 요셉이 자기 꿈을 두고 포렴한 내용이 아굽에게 기쁨과 감사로 새겨지게 되었다.

(4) 이렇게 깊이 새겨진 언약이 요셉의 삶 전체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언약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어디에 가든지 누리게 되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나는 목사의 딸이었다>하고 되어 있더라. 내용을 보니까, 아빠는 교인들에게는 좋은 목사였는지 모르지만, 아빠로서는 제로였다 하고 썼더라. ‘나는 그때는

몰랐다, 왜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고 무정했는지. 이제 자라서 보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고하사 불고처자(不顧下事 不顧妻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올 인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고 썼을 줄 알았는데. (웃음) 50살, 60살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못 깨닫고 ‘우리 아빠는 별로였다’ 하고 쓴 것이다. ‘나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했지만, 아빠로서는 미안하다’ 하는 것은 아빠의 이야기고, 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맞는 말 아니겠는가? 각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깊이 새겨진 언약이 요셉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도 낙심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았다.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아굽을 다시 만나게 된다.

17세에 언약을 붙잡았다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요셉이, 30세가 되어 비로소 바로를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30이 되어도 ‘엄마 용돈 쥐’ 하고 돌아다니는데. (웃음) 원래 유대인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한다. 청년들은 정신을 차리자. (웃음) 애굽에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는 요셉의 말대로 복직을 해 놓고도 약속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셨다. 그때 나가면 총리가 못 된다. 그 관원장의 종 밖에 더 되겠는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살진 소 일곱을 마른 소 일곱이 잡아먹는다. 또 꿈을 꾸었더니 일곱 영근 이삭이 파리하게 마른 일곱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꾸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것이다. “그를 불러오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임금을 만나고, 총리가 된다. 평생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드디어 체험하게 된 것이다.

(5) 아굽이 마침내 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 거기에서 바로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아들에게도 언약을 전달하고, 자기 민족에 언약을 전달하는 포렴을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 후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오늘은 아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 언약 전달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지금 보면 아이를 하나씩밖에 안 키운다. 아이들이 그러니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라. 우리 교역자들은 가서 램넛트를 붙잡고 도와라. 해도 안 되는가? 다 되면 왜 여러분이 필요하겠는가. 안 되는 아이를 붙잡고 울고 기도하라.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집을 주고 돈을 주고 땅을 줘도 소용이 없다. 아버지들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시기를 바란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 후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보험에 들어준다고 해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아굽은 요셉에게 언약 한 가지를 물려주었는데, 이것이 요셉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생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항상 후대에게 복음을 확인시켜야 되겠다.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후대에게 이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꿈을 계속 확인해 보라. 언약적인 꿈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포렴하고 나누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녀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간직해 보라. 이것이 열매맺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는 부모, 전달받는 자녀, 전달하는 교사, 전달받는 램넛트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식의 꿈 이야기에 대한 포렴을 부모가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